

# 便秘에 對한 文獻的 考察

(原因을 中心으로)

慶熙大學校 漢醫科大學

朴 東 源

## I. 緒 論

便秘는 消化器疾患에서 뿐만 아니라 그외의 他疾患에서도 誘發되는 症狀으로 이것은 自體의 苦痛뿐만이 아니라 그로 因하여 續發되는 便血痔疾及痔出血 腹脹痛悶 身重感 疲勞 頭痛 食慾不振 腰痛 血虧 또는 高血壓家의 위험부담 等等 苦惱이 積지 않은 것이다.

臨床的으로, 治療를 爲하여 下劑 緩下劑로서 一時的으로 解結되는 듯하여 常服하는데 그후 그 것으로 因하여 腸燥 腸無力이 되고 習慣性이 되어서 病歷이 數日에서 數年에 이르는 常習症이 된 狀態를 볼 때 治療가 그렇게 單純 容易한 것만은 아님을 經驗하는 바이다. 따라서 原因을 精確히 分析 把握하여 治療에 臨해야 될 것이다.

便秘의 限界는 대략 大便의 굳은 狀態뿐만 아니라 大便難이 數日에서 부터 長期間인 것과 大便이 細軟而不快인 것도 이에 良습된다. 즉 大便燥結 排出困難 經常三五日貳七八日 第一次 有的甚至更久 或者雖然次數不減 但是糞質干燥堅硬 排出困難 也有時有便意 大便并不干硬 只是排出不暢 或臨廁努掙 不能順利排出<sup>20)</sup>이라고 하였으며 또는 大便秘結者 常常乾燥而艱難放下也, 大便不通者 累日不得通 閉塞脹滿也<sup>21)</sup>이라 하여 定義를 述하고 있다.

便秘의 原因에 대해서 東洋醫學에서는 內因 外因 不內外因으로 크게 分類될 수 있겠는데 本論에서 述하기로 하고 西醫學的으로는 2大分하여 器質的 異常과 機能的 異常으로 分類하고 있는데 略述하면 機能的 異常으로는 大腸의 運動感退, 繼續的인 精神의 Stress, 直腸의 排便機能障礙等 이고 器質的 異常으로는 先天的으로 오는 巨大結

腸症 大腸의 惡性腫瘍이 그 原因인 것으로 되어 있다.

便秘 및 이와 類似한 症狀을 처음 內經素問 至 真要論에 大便秘結으로 表記된 以後 各種 文獻에서 大便不通 便秘<sup>16, 20, 21)</sup> 大便不利<sup>1)</sup> 大便秘結<sup>6, 8, 10, 12, 14, 15, 17)</sup> 大便燥結<sup>5)</sup> 大便閉結<sup>18)</sup> 大便秘難<sup>9)</sup> 燥結<sup>3)</sup> 脾約証 등 多樣하고 原因 또한 學者와 文獻에 따라 各色으로 記錄되어 있음을 考察할 수 있다.

이에 論者는 위와같이 호변한 것을 整理하여 보고자 우선 原因을 中心으로 考察해 보고자 한다.

## II. 資料 및 方法

### 1. 資料

文獻 50餘種을 資料로 하였으나 重複되는 것은 除하여서 약 20餘種의 文獻에서 拔萃하였음.

### 2. 方法

便宜上 便秘群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모두 包含시켰으며 治方 其他症候群은 除外하였다.

## III. 本 論

### <內經>

- 金匱真言論에曰 北方二色이 入通於 腎하여 開窮於二陰 한다
- 氣厥論에는 膀胱의 熱이 小腸大腸으로 不便한다.
- 素問厥論에는 太陰之厥則 腹滿 腹脹 後不利하고 陽不勝其陰則 五臟氣爭하며 九窮不通한다.

○素門至真要大論에는 濕淫所勝하여 大便難한다  
<傷寒論>

○小便利하고 大便硬하면 攻下하지 못하며 이는 脾約丸으로 潤之하고 食傷 太陰腹滿而食不化하여 膜響然 不能大便者는 苦菜으로 泄之하고 血燥而不能大便者는 桃区 大黃으로 通之하고 風結燥而大便不通者는 麻子仁 大黃으로 利之하고 氣澁而大便不通者는 郁李仁 只實 皂仁으로 潤之한다.

<巢氏諸病源候總論>

○原因을 將適失宜 犯溫過度 散勢不宜 熱氣積花 腸胃 故大便秘難也 이라 하였다.

<外台秘要>

- 五臟과 三焦가 이미 調和되지 않아서 冷熱이 腸胃之間에 壅塞되어 大便難이 된다.
- 腎臟이 邪氣를 받아서 虛하여 小便을 利하지 못한즉 小便利하고 津液枯燥 腸胃乾澁하여 大便이 된다.

<東垣十書>

- 腎은 五液을 主官하는 바 津液이 潤滑하면 大便이 如常하고 万若 饑飽失節 勞役過度 損傷胃氣 食辛熱 味厚之物 하게되면 火邪가 血中에 潛伏하여 真陰을 耗散하여 津液이 戲少한 고로 大便이 結燥하다.
- 種類로는 熱燥 風燥 陽結 陰結 年老 氣虛로 인한 津液不足 등으로 分類하였다.
- 治法은 腎은 燥를 싫어하니 急히 辛味를 攝取하여 潤하게 하여야 하며 結者는 散之하고 少陰不得大便是 辛으로 潤之하고 陰不得大便是 苦로 泄之 하여야 하며 陽結者는 散之하고 陰結者는 溫之하고
- 治方으로 서는 通幽湯 潤燥湯 潤腸丸

<丹溪心法>

燥結 血少하여 潤沢하지 못한것은 마땅히 陰을 養하여야 하며 熱厥脉伏時나 或은 數便秘는 만드시 難治이다. 能潤血燥하여 大便不通者는 潤麻丸을 쓰고 腸胃熱燥 大便不通者는 潤腸丸을 쓰고

脾胃熱燥 大便秘結者는 脾約麻仁丸을 쓰고 津液枯竭하여 大腸便秘澁者는 滋腸五仁丸을 쓰고 汗過多하여 津液耗散되어 大便秘結者는 潤腸丸을 쓰고 風寒으로 因하여 秘結者는 大承氣湯 小承氣湯 調胃承氣湯을 쓰고 七情의 氣가 結하여 五防으로 氣가 流通하지 못하여 脾胃가 不和해서 心腹痞悶하며 大便秘澁者는 三和散을 쓴다. 腸胃에 風氣가 雍盛하여 大便秘實한 者는 枳角丸을 쓰고 大腸에 濕熱이 沸查하여 不通해서 心腹滿 大便秘結한 者는 檳榔丸을 쓰고 上焦熱로 因한 便秘는 牛膝丸을 쓰고 三焦不和하여 胸中痞悶하고 氣不升降하며 飲食不化해서 腸胃煩으로 因하여 大便秘結한 경우는 搜風潤腸丸을 쓴다.

<医学綱目>

大便不通過 産后大便閉로 区分하였으며 東垣說은 丹溪說을 中心으로 되었다.

<医学正伝>

秘結의 原因은 房勞過度 飲食失節 或은 恣飲酒漿 過食辛熱飲食이라 하였다.

<医学入門>

腸結과 陰結로 区分하였으며 陰結은 不食 脉沈微 陽結은 能食 脉實數하다. 小便過多와 産后失血等의 原因으로 津液이 少하여 便秘가 되고, 脾約症은 胃強脾弱하여 津液이 能히 四布하지 못하고 다만 膀胱으로 輸하기 때문에 小便은 數하고 大便은 難하며 脾約丸을 쓴다고 하였다.

<万病回春>

七種으로 区分하였는데,

- 1) 熱閉는 身熱 煩渴 大便不通者 이고
- 2) 虛閉는 久病人虛로 大便不通者이며,
- 3) 津液枯竭而閉는 汗出多로 因하여 大便不通者 이고.
- 4) 風閉는 風症으로 大便不通者이며
- 5) 血氣枯燥而閉는 老人 大便不通者이고
- 6) 血虛而閉는 虛弱 産婦及失血로 大便不通者이며
- 7) 實熱은 多食辛熱之物 大便不通者이다. 治方으로는 潤腸丸

〈張氏 景岳全書〉

○虛秘 凶秘 氣秘 分秘 寒秘 燥秘 六種으로 나누어서 症狀과 治方을 列挙하였다.

〈医門宝鑑〉

○秘結者는 大便秘 또는 不通이며 腎은 津液을 主하여 腎實則 津液足하여 便이 潤하며 腎虛則 津液이 竭하여 便이 結해진다. 이는 房勞過多 飲食失節 때문이다.

○飲食之火가 脾胃에서 起하고 淫欲之火가 命門에서 起하니 火는 盛하고 水는 虧한 즉 津液이 不足하여 伝導가 잘 되지 못하여 燥結之症이 된다.

陽結者는 邪有余하고 實한 것이며 마땅히 攻하고 瀉하여야 한다.

陰結者는 正氣不足하고 虛한 것이며 마땅히 滋하고 補하여야 한다.

10種 便秘로 나누어 그 症狀과 治方을 說明 하였다.

- 1) 宿食秘者                    2) 熱秘者
- 3) 寒秘者                    4) 氣秘者
- 5) 燥秘者                    6) 痰秘者
- 7) 虛秘者                    8) 風秘者
- 9) 脾約症
- 10) 婦人産前産后 大便閉者

○通用處方：通幽湯 察導法 猪胆導法

〈濟衆新篇〉

火가 血中에 潛伏하여 津液이 耗散되어 不通하게 된다.

實者는 不之하고 虛者는 潤之한다.

治方은 通幽湯 四磨湯 硃蓉丸 등을 쓴다.

老人便秘와 脾約症은 区分하여 說明하였다.

〈医宗損益〉

老人 虛人 陰忙人 産后病後 多汗後 血失 血大吐 大瀉之后에 燥結者가 많다.

〈赤水玄珠〉

東垣說과 같이 表現하였으며 五忙 卽陽結 陰結 風結 實秘 虛秘 등으로 分類하여 症狀과 治方을 列挙함.

〈辨証奇聞〉

九種의 原因으로 分類하였다.

- 1) 其症이 口乾 舌燥 咽喉痺痛 頭目昏迷 面紅燥한 것은 腎水之涸으로 因한 것을 알수 있다.
- 2) 其症이 腹中作痛 胸中噎氣 畏寒 畏冷 喜飲熱湯한 것은 腎火之微로 因한 것이다.
- 3) 其症이 煩燥不寧하고 口渴 舌裂 兩目赤突 汗出不止한 것은 胃火之沸騰으로 因한 것이다.
- 4) 其症이 腹中飲悶 兩脇疼痛 嘔酸作吐 不思飲食한 것은 肝火之故로 因한 것이다.
- 5) 其症이 口乾 唇裂 食不能消 腹痛難忍 按之益痛 小便短澀한 것은 肝火之作祟으로 因한 것이다.
- 6) 其症이 舌下無津 胸前出汗 手足冰冷 煩悶癡躁 大便紅赤한 것은 必火之焚燒로 因한 것이다.
- 7) 其症이 咳嗽不寧 口吐白沫 咽喉乾燥兩脚冷如冰한 것은 肺經之火旺으로 因한 것이다.
- 8) 其症이 飲食無碍 並無火症之見 亦無後重之機한 것은 氣虛而不能推送으로 因한 것이다.
- 9) 其症이 手按之痛甚 欲死 心中煩燥 坐臥不安 似乎有火經 小便又復清長한 것은 畜血而不散으로 因한 것이다.

〈医学心悟〉

実閉 虛閉 熱閉 冷閉로 区分하여 그 症狀과 治方으로 說明하였다.

〈中医内科学〉

原因을 有燥熱內結 津液不足 情緒不安 氣血不足 勞倦內傷 氣壅有滯 등으로 区分하였고 便秘의 一般表現을 大便燥結하여 排出困難한다고 하였으며 治法은 清熱潤腸 順氣節滯 益氣養血 生津潤燥한다고 하였으며 種類는 크게 나누어서 實秘와 虛秘로 나누었고 虛秘를 氣虛 血虛 冷秘로 나누어 分類하였다.

〈内科〉

原因을 苦飢勞役 或食辛熱 火邪伏於血中耗散真陰 津液虧少 故 大便燥結又有年老 氣虛 津液不足 而結 등으로 因한다고 症狀으로는 大便秘而 不通

이라 하였고 治法은 陽結則攻瀉(苦寒) 陰結則滋補(溫之)

以上の 漢方 文獻上 考察에서 大體의 漢醫學은 그 原因의 관찰이 세밀하고 多樣하다 보겠으나 그 基上 結局에는 機能的인 觀察에 더욱 발전된 것이라고 사료된다. 비교를 위해서 서의 학적으로 살펴보면 便秘는 대개 常習性을 면치 못하는바 體質的이거나 常習病을 가진자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常習性 病候性의 比가 81.6% : 19.4% 인 것으로 觀察 보고된例가 있다.

發病原因은 腸自體의 異常에서는 대개 大腸의 機能적장애 기질적장애 直腸에서의 排便機能장애에 의한 排便困難症 등으로 区分되며,

즉 大腸의 運動減退에 의한 便秘는 腸內容物이 停滯되고 水分의 吸收가 보다 증가하여 糞便이 굳어지며 그 때문에 大腸內의 移動이 곤란해져 일어나는데 대개 植物性 섬유가 부족한 消化되기 쉬운 食物을 계속 섭취하거나 섭취량이 너무 적어서 腸점막의 자극이 적기 때문에 運動이 低下하거나 飲食物의 吸收가 完全한 경우에 일어난다 또 化膿性腹膜炎의 경우 腸의 運動이 停止되고 에를들면 麻痺性 일레우스(Paralytic ileus) 같은 경우에서 일어난다.

또 灌腸 아편 알카로이드 각종콜린약등은 腸緊張度를 亢進하는데 이를 계속 服用하는 경우와 安定劑계통은 腸운동기능을 저하시켜서 便秘를 苦起하는 경우가 있고,

또 계속적인 精神의 緊張등의 영향은 자율신경 失調를 이르게 大腸運動이 저하되어 변비가 되고 그 외에 영향불량 貧血 老衰등 全身疾患에 수반되어 大腸壁筋의 脆弱을 이르게 運動의 減退가 원인이 될수도 있다.

한편 運動亢進에 의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大腸의 경련수축 때문에 腸內容物의 通過障壁로 停滯를 이르게 水分의 過度吸收가 便秘를 조장하게 되는데 즉 경련성마비라 칭하여 過敏性大腸症의 便秘와 湘淳의 交代를 苦起시키는 수가 있다.

器質的인 異常으로 乳幼兒에서의 先天性巨大結腸症(Hirschsprung) 또는 腸自體內의 腫瘍 癒着炎症으로 狹窄 屈曲등이 있거나 腸外에 腹腔內腫瘍이나 子宮卵巢의 腫大가 腸을 壓迫하여서 通過장애 되어서 발생하며 또는 直腸의 排便기능 장애로 이것이 過度로 이완 확장하여 收縮不良이

되거나 또 習貫性 排便억제者 腹部手術로 腹圧이 減弱된者 下劑灌腸의 頻用者나 기타 腦脊髓疾患의 장애로 排便의 장애를 야기하는 것등으로 알려져 있다. 앞에서 말한바와같이 西醫學的인 面과 비교해 볼때 漢方에서의 治療上 그 原因을 究明할때 實際的인面 器質的인 面에서의 研究도 바람직하다고 思料되는 것이다.

#### IV. 總括 및 考察

歷代醫書 21卷에 對하여 原因을 考察하여 보던

1. 肪胱移熱於 小腸膈腸<sup>1)</sup>
2. 濕淫所勝<sup>1)</sup>
3. 血燥<sup>2, 6)</sup>
4. 風結燥<sup>2, 10, 12)</sup>
5. 氣滯<sup>2)</sup>
6. 食傷<sup>2)</sup>
- 7) 將適失宜<sup>3)</sup>
8. 犯溫過度<sup>3)</sup>
9. 散熱不宜<sup>4)</sup>
10. 熱氣積於腸胃<sup>3)</sup>
11. 冷熱擁塞<sup>4)</sup>
12. 腎腸受邪<sup>4)</sup>
13. 饑飽失節<sup>5, 17, 21)</sup>
14. 勞役過度<sup>5, 17, 21)</sup>
15. 損傷胃氣<sup>5, 17)</sup>
16. 食辛熱 味厚之物<sup>5, 17, 21)</sup>
17. 腸胃熱燥<sup>6)</sup>
18. 發汗過多<sup>6, 10, 16)</sup>
19. 七情之氣結<sup>16)</sup>
20. 腸胃風氣壅盛<sup>6)</sup>
21. 大腸濕熱 沸鬱不通<sup>6)</sup>
22. 上焦熱<sup>6)</sup>
23. 房勞過度<sup>7, 14)</sup>
24. 恣飲酒漿<sup>8)</sup>
25. 小便過多<sup>9)</sup>
26. 產後失血<sup>9)</sup>
27. 血虛<sup>10, 20)</sup>
28. 氣虛<sup>10, 20, 21)</sup>
29. 熱伏血中<sup>15, 21)</sup>
30. 血失<sup>16)</sup>
31. 血大吐<sup>16)</sup>
32. 大瀉<sup>16)</sup>
33. 腎水之涸<sup>18)</sup>
34. 腎火之微<sup>16)</sup>
35. 胃火之沸騰<sup>18)</sup>
36. 肝火之故<sup>18)</sup>
37. 肝火之作祟
38. 心火之焚燒<sup>18)</sup>
39. 肺經之火旺<sup>18)</sup>
40. 畜血而不散<sup>18)</sup>
41. 精緒不安
42. 氣鬱有滯<sup>20)</sup>
43. 寒<sup>12, 19)</sup>
44. 濕
45. 飲食失節

以上과 같이

文獻마다 差異가 있으며 또한 詳細하게 觀察되어진 것을 볼 수 있는데 中 原因別로 나누어 보면 風結燥 熱氣積在腸胃 冷熱擁塞 腸胃之燥 腸胃風氣壅盛 熱伏血中 等은 六氣의 所屬이나 外因이라 볼수 있고 七情之氣結 情緒不安 氣滯 氣鬱有滯

等은 七情所致로 思料될 수 있으며 그外는 食事關係와 勞倦傷의 內傷性이 있다.

그리고 畜血而不散은 瘀血로 보아 不內外因으로 생각 할수가 있다.

病因은 內經<sup>1)</sup>에는 「膀胱移熱於 小腸 腸胃不便」 「陽不勝其陰則 五臟氣爭 九竅不通」이라 하였고 唐代 王<sup>4)</sup>은 五臟과 三焦가 調和되지 않아서 冷熱이 腸胃之間에 擁塞되어 大便難이 된다고 하였고 明代의 李<sup>5)</sup>는 腎은 五液을 主管하는 바 津液이 潤滑하면 大便이 如常하고 万若 饑餒失節 勞役過度 損傷胃氣 食辛熱 味厚之物 하게되면 火邪가 血中에 潛伏하여 真陰을 耗散하여 津液이 虧少한 故로 大便이 結燥한다고 하였고 周<sup>6)</sup>는 飲食之火가 脾胃에서 起하고 淫欲之火가 命門에서 起하니 火는 盛하고 水는 虧한 卽 津液이 不足하여 伝導가 잘되지 못하여 燥結之症이 된다고 하였다.

便秘의 分類는 21卷 醫書에서 간추려 보면,

- ① 熱秘 ② 風秘 ③ 宿食秘 ④ 寒秘 ⑤ 燥秘
- ⑥ 痰秘 ⑦ 實秘 ⑧ 虛秘 ⑨ 陽結 ⑩ 陰結
- ⑪ 血虛閉 ⑫ 氣虛閉 ⑬ 婦人産前 産后閉
- ⑭ 脾約症 ⑮ 年老氣虛閉等 15種으로 考察되었 으며,

그 治法에 있어서는 대개 陽結則 攻瀉(散之)

陰結則 滋補(溫之) 清熱潤腸 順氣行滯 益氣養血 生津潤燥로 節略할 수 있었다.

### V. 結 論

歷代醫書 21卷에서 便秘의 原因을 考察 要約한 結果는 다음과 같다.

1. 飲食關係 (饑餒失節 損傷胃氣 食辛熱味 厚之物 恣飲酒漿 食傷等)
2. 勞倦傷 (將適失宜 房勞過度 勞役過度等)
3. 七情關係 (七情之氣結 情緒不安 氣滯 氣查有滯等)
4. 六氣關係 (風結燥 血燥 熱氣積在腸胃 冷熱擁塞 腸胃熱燥 腸胃風氣壅盛 熱伏血中 그리고 傷寒 陽明病 自汗出 小便數則 津液內竭)
5. 跌打損傷 等으로 因한 瘀血(畜血而不散)의 原因.
6. 老人 血虛 氣虛 津液涸竭
7. 産后 血失로 血虛

○ 以上이 漢醫學의으로 便秘에 처한 主要原因으로 集約 할수 있었으며 機能的인 異常의 측면에대 해서는 매우 세밀하게 관찰한 한의학의 특징을 여기서도 관찰할 수가 있다.

### <参 考 文 献>

1. 黄帝內經	張馬合註	1975	成 輔 社	P 318, 672
2. 傷寒論	張 仲 景	1971	高 文 社	P 236
3. 病源候論	巢 元 方		昭文出版社	卷 6, P 16
4. 外台秘要	王 燾	1975	成 輔 社	P 706
5. 東垣十書	李 東 垣	1974	杏 林 書 院	卷下 P 213
6. 丹溪心法	朱 丹 溪	1975	杏 林 書 院	P 505
7. 医学綱目	桜全善纂		台南北一出版社	卷二十三 P 70
8. 医学正伝	虞 天 氏	1973	医 学 社	P 531
9. 医学入門	南豐李梴	1973	新興印刷社	P 623
10. 万病回春	龔 延 賢	1972	杏 林 書 院	P 249
11. 東医宝鑑	許 浚	1972	杏 林 書 院	P 191, 196
12. 景岳全書	張 介 賓	1975	杏 林 書 院	
13. 石室秘錄	陳 士 鐸	1975	杏 林 書 院	P 162 P 453
14. 医門宝鑑	周 命 新	1975	杏 林 書 院	P 194
15. 濟衆新編	康 明 吉	1975	杏 林 書 院	P 109

- |            |         |      |          |       |
|------------|---------|------|----------|-------|
| 16. 医宗損益   | 黄道淵     | 1976 | 医学社      | P 181 |
| 17. 赤水玄珠全集 | 孫東宿     |      | 券 15 P 1 |       |
| 18. 辨証奇聞   | 濟錢松     | 1971 | 杏林書院     | P 213 |
| 19. 医学心悟   | 程国彭     | 1975 | 成輔社      | P 197 |
| 20. 中医内科学  | 上海中医学院編 |      |          | P 77  |
| 21. 内 科    | 柳基遠     | 1977 |          | P 24  |